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신 석 하 KDI거시금융연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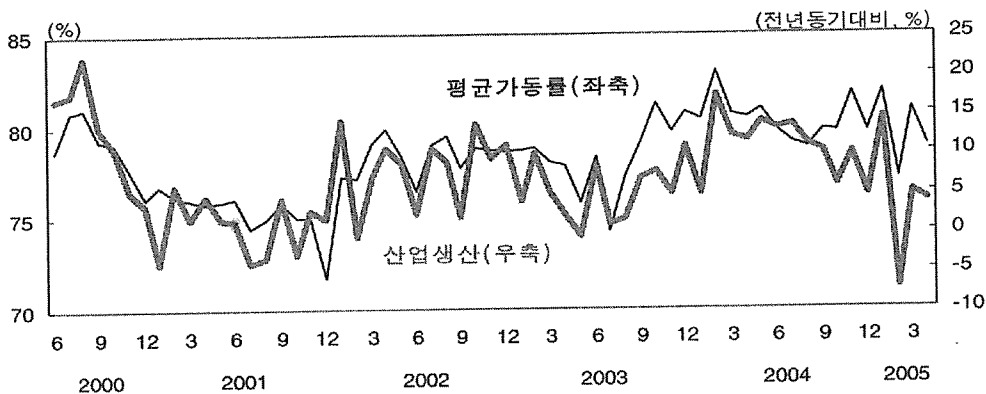
1. 전반적인 경기 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수출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는 모습이다. 설비투자는 회복세가 다소 지체되고 있으나, 민간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설투자의 부진도 점차 완화되는 등 내수는 완만하나마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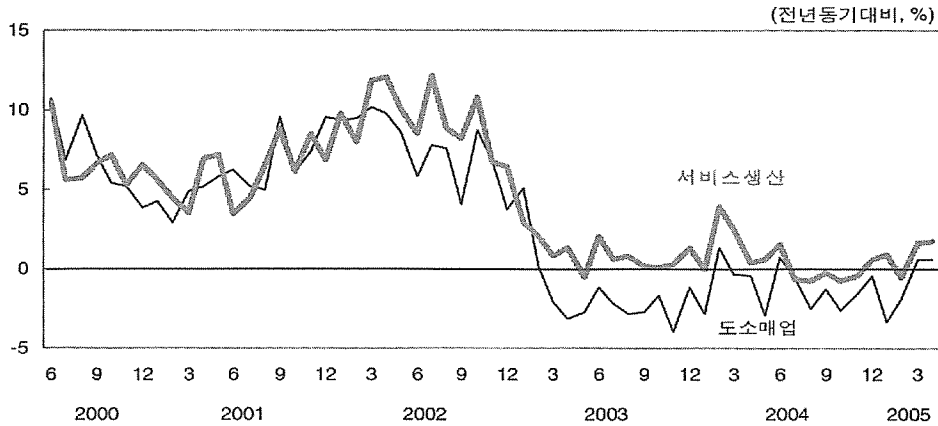
증가세가 작년 3/4분기 이후 둔화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고용상황의 개선도 지연되는 한편 기업 및 소비자의 기대심리도 연초의 개선추세를 지속하지 못하고 최근에는 다소 약화되었다.

산업생산은 4월중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하여 전월(4.9%)에 비해 증가율이 다소 하락하였으며, 계절조정 전월대비로는 1.7%의 감소로 반전하였다. 작년 4/4분기 이후 산업

산업생산 증가율 및 평균가동률 추이



서비스업활동지수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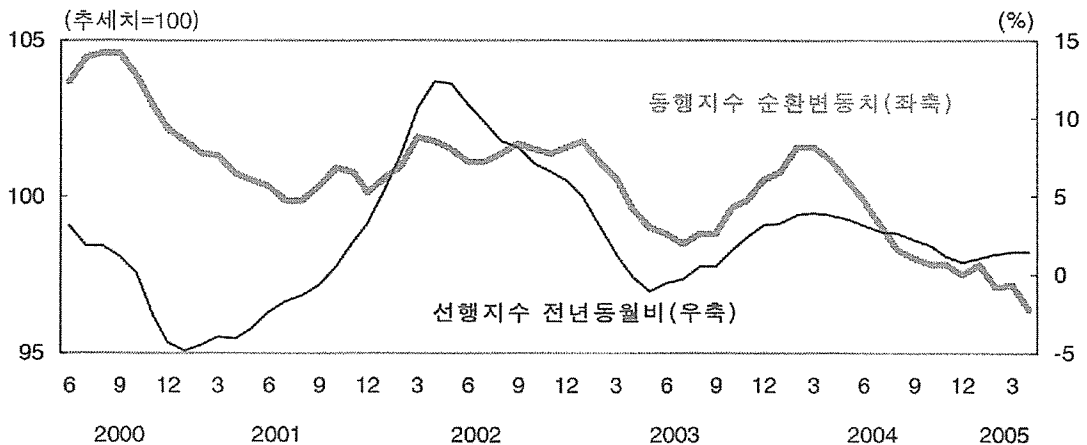
생산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된 것은 주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제품재고도 4월중에는 전년동월 대비 11.8% 증가하여 전월(9.3%)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반면 4월중 서비스생산은 대부분의 업종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하

여 전월(1.6%)보다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었다. 특히, 도소매업의 경우 2003년 3월 이래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여 장기간 침체되었던 소비가 회복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서비스업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의 증가세 둔화의 영향으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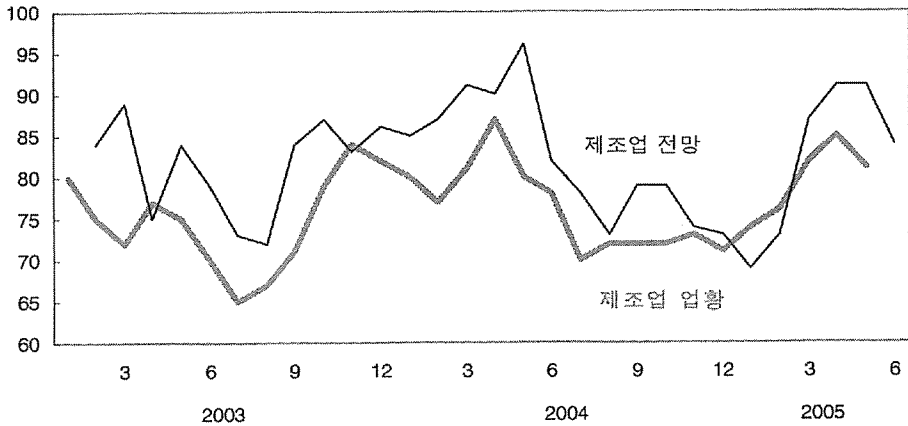


는 전월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도 3개월간 지속된 증가세에서 소폭의 감소로 반전하였다. 4월중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제조업가동률의 하락 및 산업생산 등의 감소에 따라 전월(97.2)에 비해 하락한 96.4를 기록하였으며,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월대비 0.1%p 하락한 1.4%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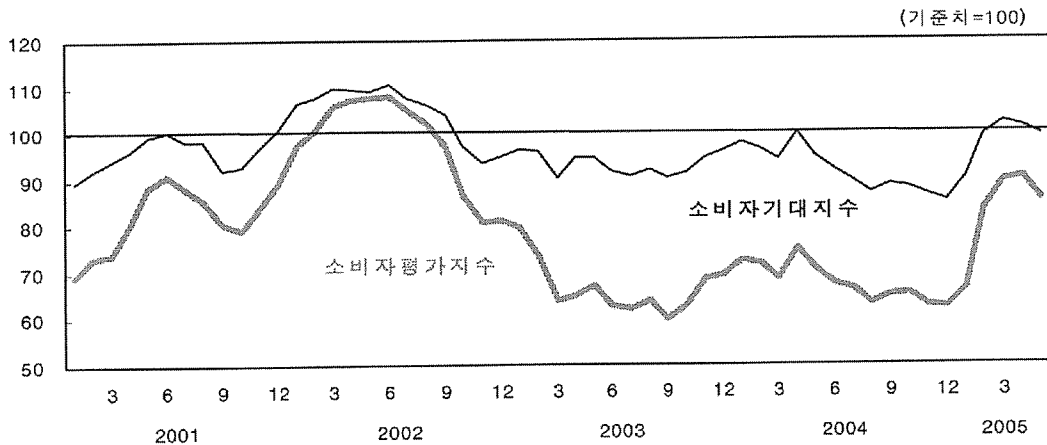
전반적인 경기의 회복이 지체됨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지표도 연초의 개선추세

를 지속하지 못하였다. 5월중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지난 4월까지의 호조세에 비해 다소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의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85)에 비해 낮은 81를 기록하여 지난 4개월 동안의 상승세에서 하락으로 반전하였다. 전경련 BSI도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계절조정 BSI의 6월 전망치는 전월(100.6)에 비해 상승한 106.9를 기록하여 향후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는 유지되고 있음

기업경기실사지수 (한국은행)



소비자평가지수 및 소비자기대지수 (한국은행)



을 시사하였다. 한편 5월중 소비자 기대지수 및 평가지수는 전월에 비해 다소 하락하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위축되었음을 나타내었다.

II. 부문별 동향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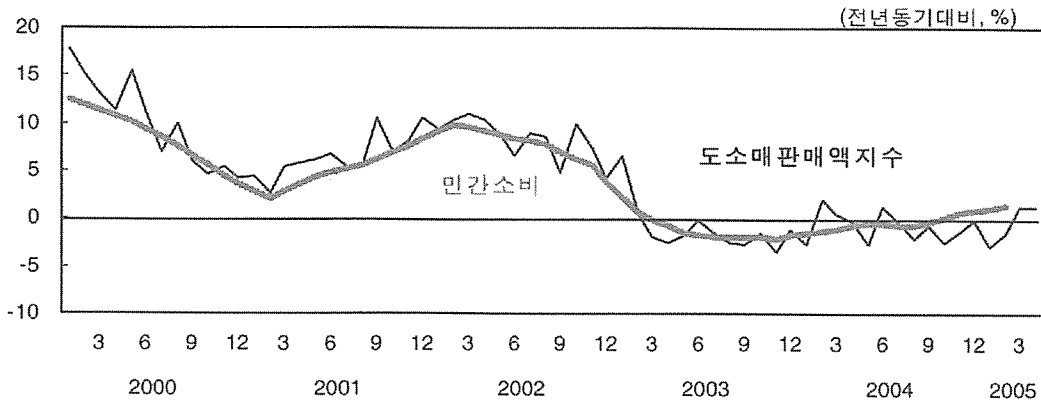
민간소비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며, 건설투자의 부진도 다소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설비투자는 작년 2/4분기 이후의

회복세가 지체되는 모습이며 수출은 작년 3/4분기 이후 증가율의 완만한 둔화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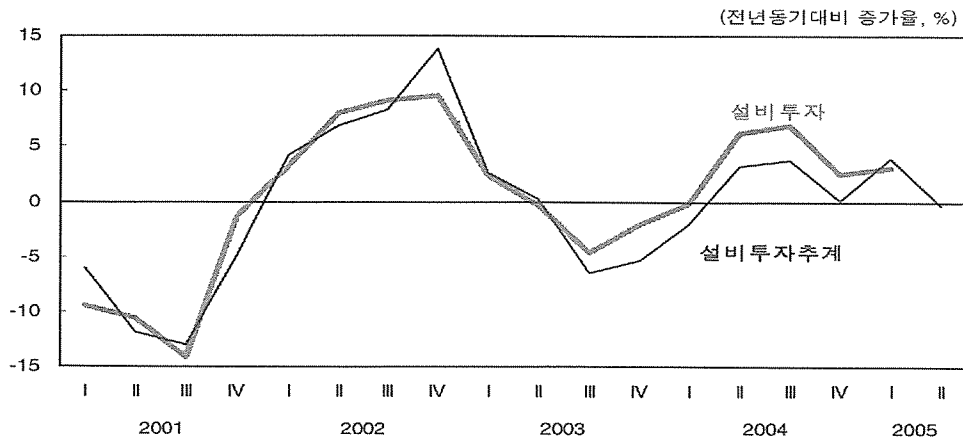
민간소비는 1/4분기 중 1.4% 증가하여 작년 4/4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도소매판매도 4월중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민간소비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1/4분기 중 3.1% 증가하여 작년 4/4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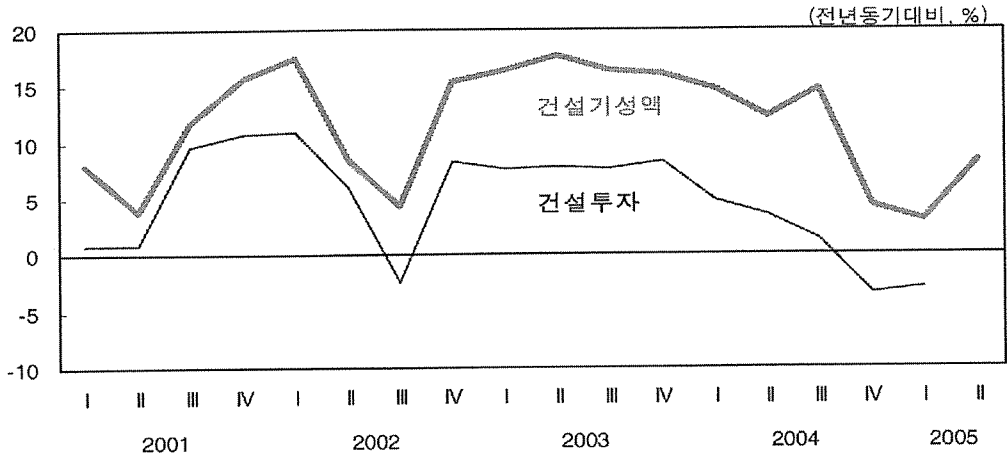
민간소비와 도소매판매지수 변화추이



설비투자와 설비투자추계 추이



건설기성액 및 선행지표의 추이



건설투자 동향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비중 ¹⁾	2004					2005			
		연간	1/4	2/4	3/4	4/4	1/4	2월	3월	4월
건설투자	1.00	1.1	4.9	3.6	1.3	-3.4	-2.9	-	-	-
(계절조정)	-	-	(-1.5)	(-0.4)	(-1.0)	(-1.0)	(-0.8)	-	-	-
건물건설	0.61	2.0	7.7	4.6	1.1	-3.7	-6.2	-	-	-
토목건설	0.39	-0.1	-0.7	2.1	1.7	-3.0	4.0	-	-	-
디플레이터	-	6.4	5.7	6.4	6.6	6.8	-	-	-	-
건설기성액 ²⁾	1.00	11.0	14.7	12.3	14.8	4.4	2.8	-2.4	5.3	8.3
공공부문	0.33	5.3	13.4	9.3	8.7	-5.3	-0.8	-0.9	-1.1	-0.2
민간부문	0.64	14.4	16.5	14.1	18.3	9.8	4.4	-2.9	8.1	12.7
국내건설수주	1.00	-5.3	-9.2	-23.8	-20.8	28.8	24.8	-20.0	72.7	29.1
공공부문	0.29	13.0	29.6	-29.3	-7.8	43.2	22.8	-57.0	177.1	54.6
민간부문	0.66	-13.5	-17.5	-22.2	-28.7	16.9	21.4	-4.1	51.7	26.2
건축허가면적	1.00	-17.3	-27.7	-34.0	-15.0	14.7	0.2	-27.3	5.6	30.5
주거용	0.43	-19.4	-37.4	-42.1	-22.0	31.4	27.6	-39.1	33.9	54.6
상업용	0.26	-32.4	-30.2	-34.9	-31.9	-31.6	-30.8	-36.8	-33.1	8.2
공업용	0.13	0.0	-14.5	-22.6	29.8	17.4	-18.1	-4.7	-9.4	20.0

주: 1) 비중은 2004년 연간 기준임.

2) 건설기성액과 국내건설수주의 증가율은 명목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건설교통부,

으나, 4월중 설비투자추계는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하여 회복세가 지체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수입기계류는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국산 기계류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건설투자는 1/4분기중 2.9% 감소하였으나, 최근 동행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선행지표들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건설경기의 부진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4월중 건설기성액은 민간부문의 공사실적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8.3% 증가하여 전월(5.3%)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었으며,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29.1%와 30.5% 증가하여 작년 4/4분기 이후의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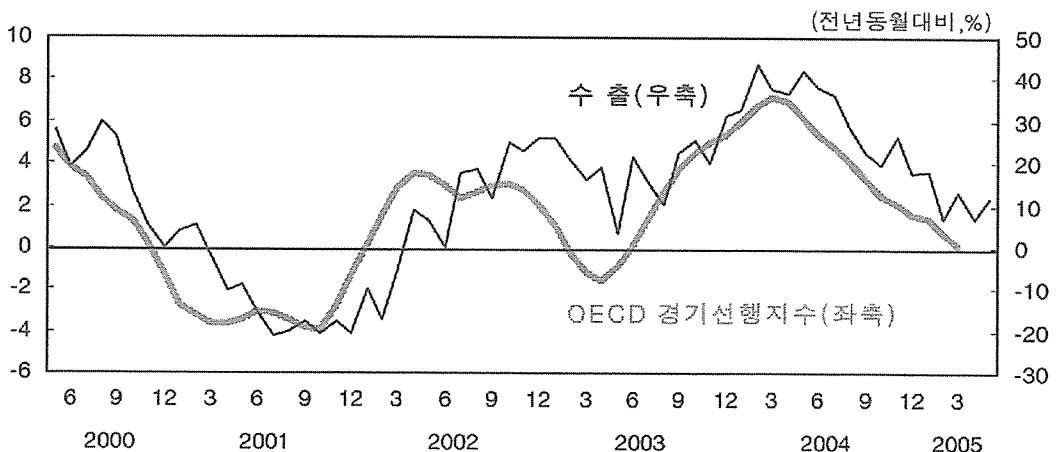
수출은 1/4분기 중 12.7% 증가하여 작년 4/4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5월중 수출은 증가율이 전월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인 둔화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 등 주력수출품목의 호조로 5월중 수출은 11.8% 증가하여 전월

(6.9%)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수출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OECD경기선행지수가 여전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수출경기는 당분간 완만한 속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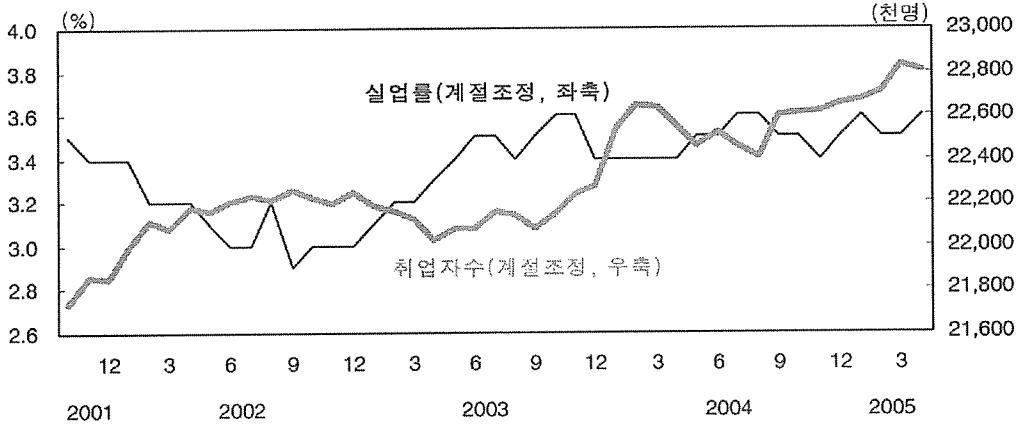
4월중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소폭 하락하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진행되어온 고용상황의 완만한 회복세가 다소 지체되는 모습이다. 4월중 경제활동참가율은 계절조정기준으로 62.0%를 기록하여 전월(62.1%)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며, 고용률도 전월에 비해 0.2%p 하락한 59.7%를 기록하였다. 특히 수출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1.2%를 기록하여 1월 이후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

5월중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를 중심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계절적 요인에 의해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농축수산물가가 전월대비 1.5% 하락하였으며, 원유가격이 5월에 다소 하락함에 따라 공업제품물가도 석유류를 중심으로 0.2%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5월중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2% 하락

OECD경기선행지수와 우리 수출



계절조정 실업률 및 계절조정 취업자수



하였다. 근원물가(곡물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도 서비스요금의 안정에 기인하여 두 달 연속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8%의 다소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전세가격은 계절적 성수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전월(0.6%)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III. 대내외 경제여건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세계경제의 성장세 회복이 다소 지체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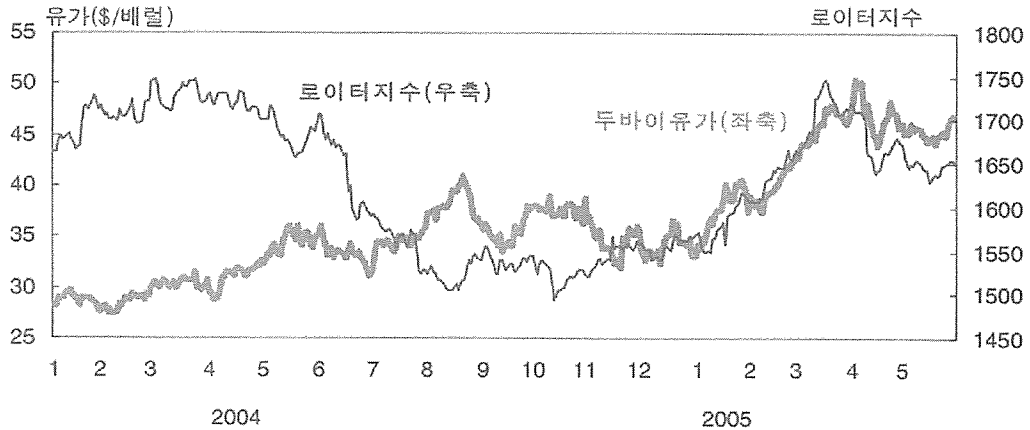
미국경제는 금년 1/4분기에 전기대비 연율 3.5% 성장하여 작년 4/4분기(3.8%)에 비해 성장률이 소폭 낮아졌다. 4월중 소비지출이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설비 및 건설투자 관련지표들도 견실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소득 및 고용이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생산관련지표들도 둔화되고 있어 향후 성장세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는 금년 1/4분기에 전기대비 1.3% 증가하여 작년 2/4분기 이후의 정체상태에서 벗어났다. 4월에도 소비부진이 완화되는 한편 수출증가에 따라 생산 및 설비투자도 확대되는 등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로경제의 경우 금년 1/4분기중 전기대비 0.5% 성장하여 작년 4/4분기(0.2%)보다 성장률이 높아졌으나, 이는 주로 소비부진에 따라 수입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월중에도 부진한 고용상황으로 인해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더욱 둔화되는 모습이다.

중국경제는 금년 1/4분기 동안 9.5% 성장하여 작년 4/4분기와 동일한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과일경기 진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정자산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비지출은 완만히 둔화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2월중 전년동월대비 3.9% 상승하였으나, 이후 둔화되어 4월중에는 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1.8%로 낮아져 인플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추이



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다.

국제유가는 5월중 OPEC의 증산과 주요국의 석유재고 증가에 힘입어 배럴당 45.4달러(두바이유 기준)를 기록하여 전월(47.1달러)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미국의 여름철 원유소비 증가전망 및 원유재고 감소의 영향으로 5월 하순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다. 한편, 5월중 반도체 현물가격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수요부진에 따라 전월과 동일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5월중 달러화가치는 미국과 유로지역간 성장률 격차 확대와 EU통합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의 영향으로 강세를 시험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 약화 등에 기인하여 전월말 대비 2.2% 상승한 1,002를 기록하였다.

IV. 향후 전망

우리경제는 향후에도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내수는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제유가가 세계경제 성장세의 회복에 부담을 주고 있어 우리경제의 수출증가세는 당분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가치의 하락세는 둔화되었으나, 미국의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감안할 때 원/달러 환율이 다시 크게 상승하여 수출의 증가세를 높이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간소비는 가계신용의 조정이 이미 상당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여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로 인해 소비의 회복은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의 부진도 선행지표들의 개선추세를 감안할 때 금년 1/4분기 이후에는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소비의 점진적 회복, 기업부문의 수익성 개선, 환율하락에 따른 수입자본재 가격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회복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은 2004년에 비해 성장률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보다 밀접한 서비스업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2004년과 동일한

2004~05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04년 ^p	2005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국내총생산	4.6	3.0	3.6	4.6	4.8	4.0
총소비	0.2	1.5	2.8	3.9	4.5	3.2
민간소비	-0.5	1.1	2.6	4.0	4.7	3.1
총고정투자	1.9	1.7	1.8	5.4	7.7	4.3
설비투자	3.8	8.0	6.9	11.8	13.1	9.9
건설투자	1.1	-3.3	-1.5	1.3	4.6	0.6
총수출(물량)	19.7	6.4	7.7	10.4	10.4	8.8
상품수출	21.0	7.1	8.0	10.8	10.7	9.2
총수입(물량)	13.8	3.3	7.7	12.5	14.0	9.5
상품수입	13.8	3.4	8.6	13.5	15.0	10.2
경상수지	276	48	36	38	26	148
상품수지	382	83	83	80	59	305
수출(금액)	2,577	673	717	721	787	2,898
(증가율)	(30.6)	(11.5)	(11.1)	(14.0)	(13.1)	(12.4)
수입(금액)	2,196	590	634	641	729	2,594
(증가율)	(25.2)	(14.1)	(17.2)	(20.1)	(20.6)	(18.1)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	-105	-35	-47	-42	-33	-157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3.6 (2.9)	3.2 (3.0)	3.1 (2.8)	2.8 (2.7)	3.2 (2.9)	3.0 (2.8)
실업률 (계절조정)	3.5	3.9 (3.5)	3.3 (3.5)	3.4 (3.6)	3.3 (3.5)	3.5

주: p는 잠정실적치(preliminary)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완화까지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이 상쇄하면서

2004년에 비해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